

**담당 : 홍보팀 임정수 차장ㅣ Office : 02)560-4434 ㅣ Mobile : 010-7680-8653 ㅣ E-mail : media@klpga.org**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5’ 2R 오후조 주요 선수 코멘트**

**김민주, 박현경**

**◈ 대회개요**

|  |  |  |
| --- | --- | --- |
| 1 | 대 회 명 |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5 |
| 2 | 기 간 | 2025년 7월 10일(목) ~ 7월 13일(일) |
| 3 | 장 소 | 하이원 컨트리클럽 [마운틴(OUT) / 밸리(IN)] |
| 4 | 주 최 | 하이원리조트 |
| 5 | 주 관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 6 | 총 상 금 | 10억 원 (우승상금 1억 8천만 원) |
| 7 | 코스길이 | 파72 / 6,544야드 |
| 8 | 참가인원 | 108명 |
| 9 | 주요  출전선수 | 고지우, 박혜준, 이예원, 홍정민, 이동은, 노승희, 이가영, 방신실, 김민선7, 박현경  정윤지, 김민주, 박보겸, 유현조, 김시현, 송은아, 정지효, 배소현, 이다연, 서교림  한진선, 임희정, 이정은6, 김정현, 오수민(A) 등 |
| 10 | 중계방송 | SBS골프, 네이버, 다음카카오, U+모바일tv |
| 11 | 방송일정  (생중계) | [1라운드] 11시 ~ 17시  [2라운드] 11시 ~ 17시  [3라운드] 10시 ~ 16시  [최종라운드] 10시 ~ 16시 |

**◈ 김민주, 2라운드 중간합계 9언더파 135타(71-64) \*단독 선두**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10081>

**[코스레코드 타이 기록]**

하이원 컨트리클럽 코스레코드: 2018 /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18 3라운드 / 배선우 / 8언더파 64타

**[코멘트-대회조직위 제공]**

**Q. 오늘 경기 소감은?**

오늘은 샷 감각이 그렇게 날카롭지는 않았다. 버디를 많이 만들 만큼 샷이 좋지는 않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퍼트가 샷보다 더 잘 해결해 준 날이 많았다. 오늘도 퍼트가 특히 잘 된 날이었고 중장거리 퍼트가 많이 들어가면서 버디를 많이 만들 수 있었다. 공도 내가 생각한 대로 잘 굴러갔다.

**Q. 첫 홀에서 이글을 기록했는데, 의도한 것이었나?**

셋업 할 때부터 느낌이 좋았다. 편하게 쳤는데 공이 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결과도 좋았다. 첫 홀부터 두 타를 줄이면서 나머지 홀을 더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었다.

**Q. 우승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다 최근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내 플레이의 강점은 아이언 샷인데, 최근에는 아이언 샷에서 찬스가 부족했다. 쉽게 버디, 파를 만드는 경기보다는, 어렵게 버디를 만들고 겨우 파를 하는 경기를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컸고 힘들었다. 그래도 이 시간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다.

**Q. 아이언 샷이 무뎌진 이유가 있었나?**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다. 그동안은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했지만, 아주 미세한 차이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최근에는 리듬에 더 집중하고 있다. 그게 더 좋은 방향인 것 같아 연습 중이다.

**Q. 오늘이 최근 부진을 털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오늘 자신감을 얻었고,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믿음이 생겼다.

**Q. 오늘 코스 레코드 기록 등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나?**

전혀 몰랐다. 끝나고 나서 들었는데, 알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Q. 오늘 가장 어려웠던 홀은?**

3번 홀이 가장 큰 위기였다. 티 샷이 크게 오른쪽으로 밀려 러프의 좋지 않은 경사에 떨어졌고, 그린까지는 40m 정도 남은 상황이었다. 핀 위치가 2단처럼 되어 있어 파 세이브가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어프로치가 정확히 떨어지며 칩인 버디를 했다. 위기가 버디로 바뀐, 놀랍고도 인상 깊은 순간이었다.

**Q. 남은 이틀 동안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오늘은 샷 감이 썩 좋지 않아 매 홀 조심스럽고 어렵게 플레이했다. 남은 이틀은 편하게 공략하고 싶다.

**Q. 이번 대회를 우승 기회라고 생각하나?**

물론이다. 하지만 아직 36홀이 남아 있다.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좋았던 기억을 바탕으로 남은 이틀도 차분하게 플레이하겠다**.**

**◈ 박현경 2라운드 중간합계 6언더파 138타(71-67) \*단독 2위**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9130>

**Q. 오늘 경기 소감?**

지난주에 경기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꼭 주말까지 플레이하고 싶다는 것이 1차 목표였다. 경기 전에 연습하면서 퍼트와 샷에서 변화 포인트를 찾았고, 그 점을 필드에서 계속 시도했다. 다행히 잘 통하면서 버디도 많이 만들고, 찬스도 잘 살려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타수를 줄일 수 있었다.

**Q. 몸 상태는 어떤가?**

감기는 아직 좀 남아 있고, 옆구리 통증이 있다. 한국오픈 마지막 날에 옆구리에 담이 심하게 왔고, 병원에서 2주간 쉬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짧은 클럽은 괜찮지만, 드라이버나 티샷을 세게 쳐야 할 땐 통증을 느낀다. 그래도 선수의 숙명이니 잘 관리하고 있다.

**Q. 견딜 만한 수준인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티샷을 하고 나면 항상 옆구리를 잡게 된다. 다운스윙하면서 힘을 쓸 때 통증이 심하게 오는데, 그때 확실히 잡아채지 못하면 샷이 밀리는 경우가 생긴다.

**Q. 지난주 주말에는 특별히 한 일이 있었나?**

감기 기운이 있어서 토요일 오전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수액도 맞았다. 오후에 충남 예산으로 드라이브를 다녀왔다. 도심을 벗어나고 싶어서 친구와 함께 수덕사나 예당호 출렁다리 같은 곳을 들렀다.

일요일엔 변함없이 연습했고, 혼자 카페에 가서 책도 읽었는데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갔다.

**Q. 오늘 특히 잘 쳤는데, 이유는?**

연습장에서 셋업 시 우측 어깨가 빠져 있다는 걸 깨달았다. 어깨가 아파서 그런지 자세가 흐트러져 있었다. 그 점을 인지했고 오늘은 필드에서 어깨 정렬에 집중했다.

퍼트도 공이 원하는 만큼 굴러가지 않아서 고민했는데, 핸드 퍼스트가 잘 안되고 손 위치가 중앙에 있었던 걸 발견했다. 이 부분을 수정했더니 오늘은 퍼트도 잘 떨어졌다.

**Q. 아픈 몸을 이끌고도 주말 우승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좋다.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 우승도 한 번 하고 톱텐에도 많이 들었지만 대부분 7~9등 정도였다. 우승 경쟁에 자주 나서지 못한 점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경쟁할 기회를 얻어서 다행이다. 이번엔 잘 마무리하고 싶다.

**◈ 유현조 2라운드 중간합계 3언더파 141타(70-71) \*14시 30분 기준 공동 6위**

**[상세 프로필]**

<https://klpga.co.kr/web/profile/mainRecord?playerCode=10146>

**Q. 오늘 전체적인 경기는 어땠나?**

처음에는 샷이 크게 안 좋다기보단, 거리 조절이 잘 안 됐다. 그린이 생각보다 단단해서 찬스를 잘 못 만들었고 '보기, 파'가 계속 이어졌다. 그래도 후반에 연속 버디도 나오고, 실수가 좀 있긴 했지만 마무리를 잘 해서 괜찮게 끝냈다.

**Q. 코스와 그린 컨디션은 어땠나?**

오늘은 오전에 쳤는데, 어제 오후에는 풀이 길었던 반면, 오늘은 풀이 짧아서 그린 스피드가 빨랐다. 그 스피드에 맞추는 것이 좀 어려웠다.

**Q. 날씨가 선선했는데, 플레이에 영향은 없었나?**

날씨는 선선해서 좋았지만, 바람 때문에 치기 어려웠다. 그래도 시원한 날씨는 괜찮았다.

**Q. 산악 지형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편인데, 본인에게 잘 맞는 코스인가?**

요즘에 산악 지형이 아닌 코스에서도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톱텐에도 계속 들고 있다. 그래서 딱히 지형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Q. 이번 대회에서도 톱텐에 들면 7회 연속인데, 알고 있었나?**

몰랐다. 처음 들었다. 미리 알려줬으면 더 신났을 것 같다.

**Q. 계속 좋은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작년보다 체력 관리에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공식 연습 라운드를 일부러 안 하고 있는데, 이미 코스도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느꼈다. 오히려 체력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된다.

**Q. 오늘 플레이 중 아쉬운 점은?**

실수가 좀 터무니없이 많았다. 그 점이 많이 아쉬운데, 남은 이틀 동안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